

##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

李 水 仁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Deconstructive Expression Style in Contemporary Hairstyle

Su-I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2. 해체주의(Deconstruction)

3. 복식의 해체주의적 표현 양식  
수용

III.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

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2. 탈중심

3. 의미의 불확정성

I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Contemporary hairstyle is too various and individual to be explained by an objective theory and an asthetic appraisal. Consequently,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expression of contemporary hairstyle on the basis of J.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as:

First, it breaks up binary metaphysic and pursues disharmonious beauty because of intertextuality.

Second, it breaks up logocentrism metaphysic and pursues neglected beauty because of decentring.

Finally, it breaks up present metaphysic and puruses accidental beauty because of undecidability.

#### I. 서 론

현대에는 규격화, 획일화, 집중화, 중앙집권화 등의 성격을 띄는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탈규격화,

개성화, 세분화, 분권화 등의 다양화된 성격을 띄는 탈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분야의 기성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절대적인 믿음과 진리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치

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 (Deconstruction)' 선언은 구조주의(Structualism)이론은 물론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 근본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기인 동시에, 기존의 고정관념적 중심성을 해체하고 '타자 인식적 사고'를 대동시킨 '억압된 것에 대한 복귀현상'이었다. 사실상 자크 데리다의 '해체' 자체는 어떤 사물의 은유적 유형이 아니며, 해체와 디자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규범적 관습이나 지배적 관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 시대 지성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해체주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 세기말적 포스트모던 양상에 맞물려, 철학, 문학, 건축, 미술, 실내 디자인, 공업디자인, 복식디자인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현상은 헤어스타일의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원리나 미적 평가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닫힌 세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유형화시켜 분석, 고찰함으로써 헤어스타일의 현대적인 조형예술적 특징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체주의적 헤어스타일이 어떤 특징으로 표현되고 있는가에 연구의 목적을 두며 또한 헤어스타일의 표현양식에 대한 조형적 시각을 재조명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해체주의적 헤어스타일의 표현양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체주의에 대한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해체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하여 먼저 고찰하고 이어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해체주의적 헤어스타일과 복식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토달 코디네이션 개념안에 포함되므로 해체주의적 복식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각종 잡지, 문헌들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고찰하여 확장된 미의 열린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구조주의의 전개과정에서 구조주의의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자기부정적인 회의적 반응으로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탈구조주의)의 발전 과정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어서 해체주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서구 지성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구조주의는 知的 운동이며 나아가서는 思考의 유형이며 또한 일종의 세계관이나 시대정신으로 이해된다.

지난 이삼십년동안 포스트구조주의는 서구의 지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인간행위와 그 사물들을 설명하는데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었다기 보다는 매우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체주의라고 불리는 자크데리다의 철학이론과 그것을 문학에 적용시킨 미국 에일학파의 문학이론, 미셸푸코의 사회이론과 역사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자크 라캉의 심리분석이론, 20세기 후반의 정보 사회에 큰 관심을 갖는 장 프랑수와 리타르의 포스트모더니티이론, 그리고 롤랑바르트의 문학이론과 문화이론, 질리아 크리스테바의 페미니즘이론, 프로이트와 칼 마르크스를 접목하고자 하는 루이 알튀세르의 내오마르크스주의,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론 등이 포스트 구조주의로 포함된다.<sup>3)</sup>

1960년말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고 발전된 포

1) 김주영,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현상 (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p.1262.

2)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6, p.12.

3) 위의 책, p.13

스트구조주의는 장 폴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전개된 실존주의와 모리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 그리고 이 두 철학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나타난 구조주의의 뒤를 이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구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주의 핵심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조주의는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로그 학파의 언어학에서 큰 영향을 받고 발전된 것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 즉 언어와 문학 작품을 비롯한 모든 지식과 문화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나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레비 스트로스나 바르트를 비롯한 구조주의자들은 그 동안 언어분석의 이론과 방법에 기초한 이런 내재적인 구조나 체계를 발견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예를 들어 동화나 신화 또는 문학작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의상이나 음식, 레슬링 경기까지도 모두 연구대상이 되었다. 구조주의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 동안 구조주의적 분석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sup>4)</sup>

이러한 구조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준 사람은 흔히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이다. 그는 "일반언어학 강의(1915)"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저서에서, 언어의 추상적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sup>5)</sup>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와 '파롤'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실제언어 이전에 존재해 있는 추상적 체계로서의 언어를 가리키고 후자는 개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즉 전자는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 규칙 체계를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그 체계가 개인적으로 구체화되는 발화나 스피치를 가리킨다. 이때 소쉬르는 이 두 유형의 언어 중에서 오직 추상적 체계인 랑그만이 언어학의 대상이 될 뿐, 개인의

구체적인 발화는 결코 언어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말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언어적 기호를 "시니피앙(기표)"<sup>6)</sup>와 '시니피에(의의)'<sup>7)</sup>의 두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구조주의란 현실주의와 긴밀하면서 경험주의와 실존주의에 반대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또한 체계적 특성을 갖는 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체주의, 번역사주의 등의 방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넓은 의미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196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구조주의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1960년대말 프랑스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안에서 발전한 것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를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인간행위에서 의미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주의를 논리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셋째,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는 다함께 비역사성과 비정치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구조주의는 추상적 체제나 구조를 갈망하고 정복하려 하지만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다. 즉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이성 중심주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도 구조주의 방법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체계나 구조안에 존재하고 있다.<sup>8)</sup>

포스트구조주의가 구조주의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구조주의와 중요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첫째,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는 달리 언어의 지시적 기능에 강한 불신을 보인다. 이 두 이론 모두 언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언어의 지시성에 깊은 회의의 보이면서 구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감옥'에 갇힌囚人으로 해석한다. 즉 소쉬르의 언어적 부호란 오직

4) 김옥동, 1996, p.31.

5) 경한주,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 p.13.

6) 음성으로 되어 있는 청각적 소리이미지나 문자로 되어 있는 시간적 부호를 말한다.

7) 그 언어가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

8) 이현아, 해체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1997, p. 13.

임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는 극히 불안정한 관계이며 끊임없이 분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다시 결합된다면서 소쉬르의 지시적 언어모형을 부정한다.

둘째, 포스트구조주의가 구조주의와는 달리 '인간주체'나 개별적인 자아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다. 트네상스 이후 신증심의 세계관에서 해방되어 개인은 자유로운 지적 행위자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구조주의에서 처음 대두된 주체에 대한 불신을 포스트구조주의에 와서 극단적인 회의주의로 발전되었다.

셋째, 포스트구조주의가 구조주의와는 달리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인 관계가 한결 더 강조된다. 구조주의에서 독서는 일련의 단어와 구 그리고 문장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인간으로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다원적인 의미를 창출해 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 체계의 묵시적인 부호에 의해 상당 부분이 제한된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한 텍스트 안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반면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독서를 단순히 주어진 한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체계를 발견하는 것 이상의 더욱 능동적인 행위로 설명한다. 그것은 독자가 텍스트와 끊임없이 맺고 있는 역동적이 상호교류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의 독서는 능동적인 생산행위에 해당되며 독자는 창조적인 참여자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구조주의는 추상적 체계성이나 총체성을 거부하여 재의된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포스트구조주의는 크게 텍스트주의적 유형과 정치적 유형으로 크게 나타난다. 텍스트주의적 유형은 텍스트밖에 존재하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보다는 오히려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데리다와 미국의 예일학파가 대표적이다. 반면 정치적 유형은 사회공간과 시간 역사위에서 이루어지

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세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푸코, 알튀세, 사이드, 바흐친, '뉴 히스토리시즘' 학파가 대표를 이루고 있다.<sup>9)</sup>

본 연구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 텍스트주의적 유형에 포함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헤이스타일의 열린 표현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2. 해체주의(Deconstruction)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움에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인문학의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0)</sup> 이것은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과 구조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기였고 해체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이다.<sup>11)</sup> 그는 니체의 물이성적, 반이성적 영역을 찬성하면서 하이데거, 푸코의 계보를 이어받은 해체주의자로서 형이상학, 인과율의 개념, 동일성, 주체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비판하였다.<sup>12)</sup>

즉 데리다의 해체주의란 "현전(現前, Presence)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분법 대립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주요 공격목표는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석,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특성을 지니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텍스트 주변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데리다 철학의 두가지 성과는 새로운 사유의 논리이론 개발과 텍스트이론이다.

첫째, 새로운 사유의 논리이론의 개발로 데리다는 '현전'의 형이상학과 로고스중심주의 형이

9) 김옥동, 1996, p.24.

10)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3.

11) 양세은,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p.49.

12) 임현규,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1.

상학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현전은 모든 개념들을 무엇이 근본적인가 또는 중심인가, 근거나 권리로 취급되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철학적 시도속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 “차연(Differance)”이라는 그의 신조어를 개발하여 진정한 현전을 부정하고 동시에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를 부정한다.

이때 차연이란 운동은 현전하는 순간이 제공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의 관계인 산물인 경우에만 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차연(differance)은 프랑스어로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로서 difference에서 유래된 것으로 라틴어 differre를 어원으로 하는 프랑스어의 동사 Differer의 명사형이다. Differer는 공간성과 연결되어 차이(to differ)라는 의미와 시간성과 연결되어 연기(to defer)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전/부재라는 대립에 입각해서 생각될 수 없는 하나의 구조이다.<sup>13)</sup>

데리다의 차연은 기표(signifiant)의 유희로서 소쉬르의 기호의 개념 즉, 기호의 기원(말이 지시하는 대상)과 끝(의미)을 연결하는 동종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고 단지 기호를 하나의 아무런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어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믿음, 언어의 재현능력을 거부함으로써 기호를 객체로부터 해방시켜 해석에 직면한 오류도 진리도 기원도 없는 기호의 세계를 주장한다. 따라서 차연을 이용한 데리다의 새로운 사유논리개발에 의하여 로고스중심주의 형이상학과 현전의 형이상학을 부정하면서 의미를 불확정성과 탈중심적인 의미까지 확대시켜 이해한다.

둘째, 데리다는 ‘파르마콘(Pharmakon)<sup>14)</sup>’으로 시작한 새로운 텍스트의 철학적 해독원리를 제시한다.

텍스트는 여기저기 부유하는 특성을 지니기에 어떤 일정한 주제로 의미를 이끄는 역할을 부정

한다. 또한 텍스트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 이상의 의미가 생겨 의미의 일정지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다의적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무의미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텍스트는 의미와 무의미, 의미의 단수와 복수의 그런 재래적인 인식론적 태두리를 벗어나서 의미 자체를 흩어버린다. 이것이 산종(Dissemination, 散種)이다.<sup>15)</sup>

산종이란 “보충성의 논리(Supplement)”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이원론적 대립에서처럼 두 의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의미 사이의 구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에서의 개념들은 어느 한 의미로 결정됨이 없이 결정 불가능한 혼적으로 해체되어져 그것들은 그들 자신 안에 스스로와는 다른 의미들을 품게 된다. 예를 들면 기호의 의미는 기호와 다른 어떤 것이기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미는 모든 기표의 연쇄를 따라서 산종되어 있다. 즉 의미는 쉽사리 하나로 고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의미는 결코 자기 자신과 동일할 수 없다. 기의는 그것이 얽혀있는 다양한 기표의 연쇄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이다.<sup>16)</sup>

즉, 텍스트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인 의미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텍스트가 설정한 기준과 개념이 그 자신의 본원과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결정 불가능성을 의미하게 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데리다는 차연의 ‘차이’와 ‘지연’에 의한 의미의 불확정성, 탈중심 뿐만 아니라 한 단어내에서의 ‘산종’을 통해 결정 불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구조주의 입장에서 모든 표상적 언어로 이루어진 텍

13)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378-379.

14) 치료제라는 의미와 동시에 독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치료제와 독약의 양 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파르마콘을 독약 혹은 치료제의 어느 하나의 의미로 결정하는 것은 그 기호에 간직된 의미들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것은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사고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경한주, 1995, p.11.

16) 장경숙, Jacques Derrida의 해체이론, 홍익대학교 미술과 미술전공 석사학위논문, 1992, p.51.

&lt;표 1&gt;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특징

해체주의 목표	해체전략	개념	특징
현전의 형이상학의 해체	차연	불확정성	현전/부재의 대립을 초월한 모든 의미의 기능
로고스 중심주의 형이상학의 해체	차연	탈중심	모든 철학적 논리에 있어서 중심을 중앙으로 주변과 이루어진 논리를 거부한다. 예를 들면, 남성중심주의, 물질주의, 음성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이분법적 형이상학의 해체	산중	결정불가능성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의 의미와 무의미, 의미의 단수와 복수의 인식론적 테두리를 벗어나 의미자체를 흩어버림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해체

스트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 전존재성을 인정하여 종래의 형이상학적 철학이 전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해체주의이론을 성립시켰다.

따라서 닫힌 체계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사고를 추구한다.

### 3. 복식의 해체주의적 표현 양식 수용

폐선에 있어서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잡지에서 빌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취해졌으며 패션계는 1989년 파리에서 열린 마틴마지엘라(Matin Margiela)에 의해 선보인 '90년 봄을 위한 쇼'의 의복에서 분해적 폭로와 의복의 완전한 존재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 대한 일종의 폭력적 해체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체주의 논의의 전환성을 마련해 주었다.<sup>17)</sup>

또한 해체주의 복식 이론 성립의 근거를 마련한 1993년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인프라 어패럴(infra Apparel)"전의 카달로그 저자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해롤드 코다(Harold Koda)는 복식에 있어서 지적 모델인 해체는 응집성 있는 전체, 즉 전존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로 노출시키

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써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8)</sup>

이러한 해체주의적 복식의 표현 양식은 크게 내부적 해체와 외부적 해체로 보여진다.

#### 1) 내부적 해체

내부적 해체주의 복식은 데리다의 해체철학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첫째, 고정관념 또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대항문화의 기능을 함유하려는 상호텍스트성의 표현양식으로 나타난다. 즉, 복식의 이분법적인 과거와 현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동양과 서양 등의 공간성을 초월하고 쇼트와 롱, 포멀과 스포츠, 하드와 소프트, 목적이 다른 아이템의 상호인용이 대조되는 것을 집대성하여 이질성, 부적합성, 이의성을 발생시켜 목적을 해체한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표현양식은 크게 세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無性的인 모습으로 남녀개념을 두지 않고 남녀 성 구분이 모호하며 또한 양성도 아닌 남, 녀 개념이 해체된 제 3성을 추구한다. 레드 오어 데드(red or dead)는 바지에 프릴을 달았고 골피에는 스커트를 등장시킴으로써 성을 해체시키고자 한다. 둘째,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복식표현으로 T.P.O의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낸

17) 이현아, 1997, p.24.

18) 김주영,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현상(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Vol. 21, No. 8, 1997, p. 1266.

다. 골띠에는 밀리터리 재킷에서 턱시도, 수녀복까지 전통 유니폼을 일반복식으로 전환, 페티쉬스트(fetishist), 러시아인 망명자, 몽고부랑자와 인도귀족을 이용해 고전적 남성복 테일러링을 현대화시킴으로서 T.P.O. 모두를 해체한다.

셋째, 전형적인 의복 set의 개념을 해체한다. 이것은 정반대의 것들을 조합하여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난다. 베르사체의 스커트와 펜츠의 믹스(소위 댄서), 신소재와 기존소재, 소포타한 의복으로 사용되는 가죽과 고가로 가공한 이브닝 드레스 소재 등 자유로운 조합으로 아이템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한다.

둘째, 무가치, 소외되었던 소수민족이나 하위문화와 같은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으로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로고스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나아가서는 탈 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의복에 있어서 탈중심은 탈구성으로 나타나는데 탈구성이란 제 3세계, 여성 등이 비주류문화 혹은 하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텍스트를 분해, 분석하고 의도적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즉 전통적 디자인 과정의 역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중심적 해체주의적 복식은 전통적 의복의 일정한 형태를 갖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통제하지 않고 입는, 봉제를 극소화하여 입는, 심지어 안감, 다리미 처리도 없이 만드는 의복, 즉 기본적인 의복의 형태를 벗어난 것이 아름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스키아 파렐리는 종종 고의로 인체와 의복을 혼동시켜 상상을 유도하는데 재킷에 자수된 손장식이 착용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속옷의 개념인 콜셋을 플라토는 팔찌로, 라거펠트는 모자로, 골띠에는 드레스로 전위시켰는데 이러한 전위는 오브제가 복식 아이템 안에서 역할과 지위를 바꾸어도 복식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다. 요지야마모토는 전통적 중력방향의 수직, 수평적 앞중심선, 옆솔기선, 다아트선을 탈피 비대칭적 사선을 이루면서 탈중심화를 표현한다. 골띠에는 장애인이나 뚱뚱한 모델을 그의 콜렉션에 등장시켜 기존의 미적 개념에 위배된 탈중심적 사고를 제시한다.

셋째, 현전의 형이상학은 붕괴, 해체시켜 우연

성의 원리로 통합하여 의미의 불확정성을 지향한다. 복식의 근원적 착장방법으로 상하의, 걸안감, 내외의, 탈착 등 인체에 밀착되었을 때 똑같은 완성태를 보여주는 서구의복과는 달리 착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미완성태의 의복을 제시함으로써 착장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이러한 불확정적 세계관을 지배하는 해체주의의 복식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간구성에 의해 우연성을 지향한다. 인체형을 무시한 직선적인 재단은 원단이 떨어짐에 따라 완성되는 잠재적 형태 특히, 두르기, 걸치기, 매기의 방법으로 여러 겹의 의복을 자유롭게 레이어링(layering)시켜 결국 인체에 의해 다시 유동적인 선으로 재창조되어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을 강조하여 불확정적, 우연적 미를 이룬다. 부정형 의복은 신체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라인이 생길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으며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고정시키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완결되는 비구조적인 형태는 우연성, 열린 개념에 의한 미완성의 미학으로서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세이 미야게, 요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독창적 조형감각의 등장과 함께 착장법의 불확정성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직사각형 한 장의 천이 착용자에게 여러 형태로 연출되어 착용자에 의한 완결되는 잠재적 형태라는 특성을 지니며, 비구조적인 형태의 가운을 두르기, 매기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게 함으로써 불확정성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 2) 외부적 해체

외부적 해체는 물리적 형태의 의피를 그 대상으로 노출, 파괴, 빈곤, 분해, 분석 등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첫째, 복식의 노출적 해체는 ‘속옷은 겉옷 안에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해체’라는 문제 그대로 적용해 복식의 겉옷을 제거, 역전시키고, 라제리, 심지, 안감, 솔기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해체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베르사체는 콜셋가운, 뒤글러는 콜셋슈트를 제시한다. 존 갈리아조는 시스루 소재를 이용하여 은폐되어야 할

안감과 슬기, 팬티 등을 노출하였다.

둘째, 복식에 있어 파괴는 그 의미적 적용이 '해체'라는 문자 그대로 적용된 외부로부터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미의식에 대한 충격법, 추, 불쾌감이 주는 공격성, 하찮은 것에서 미를 발견하기 위해 주로 파괴적 해체를 다루었다. 의복을 만들기 전에 천에 칼집을 내고 휴지처럼 불품없이 구겨놓기도 하고 혹은 휴지 조각같은 처리로 의복을 만들어 옷감을 파괴하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효과와 긴장감을 나타내는 경우로써 그 대표적이 예가 핑크룩이다.

또한 부를 표시하거나 빈곤을 가장하는 것은 과시 대 가장의 긴장 사태로서 복식에 나타나는 겸손과 억제적 표현은 화려한 복식과 보석으로 장식된 부의 지나친 표현보다 더 나은 사회신분에 대한 진실된 표시다. 빈곤광택은 의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버리고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고 전통적으로 부의 상징이었던 복식의 고정 관념을 해체함으로써 복식에서의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해체를 나타낸다.

패품미학, 과시적 빈곤 등의 빈곤미학영향 아래 푸어룩, 할머니웃과 같은 그래니룩, 1980~90년대의 레이 가와쿠보의 푸어룩(poor look), 그룬지룩(grungy look)으로 나타난다.

셋째, 복식에 있어 분석, 분해는 실루엣을 해체시키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복잡한 테일러링 기술에 의한 것이다.

20471120은 재킷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원피소화하였는데 배이넨 칼라와 비대칭적으로 허리 아래에 입혀진 재킷의 몸통 부분 등의 분해된 조각들에 의해 우아함과 복잡함, 파괴 등의 양면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 III.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

테리다의 해체주의적 철학이론, 즉 상호텍스트성(이분법적 형이상학의 해체), 탈중심(로고스 중심주의 형이상학 해체), 의미의 불확정성(현전

의 형이상학의 해체)을 중심으로 현대 헤어스타일의 해체주의적 표현양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텍스트성이란 일정한 주제로 의미를 이끄는 텍스트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그 이전에 존재해 있는 텍스트들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하는 것으로<sup>19)</sup> 서로 다른 의미들이 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텍스트를 말한다.<sup>20)</sup>

1995~96년 A/W를 위해 발표되었던 프리미에르 비종의 오디에 비주얼에서 보여진 테마이기도 했던 듀얼리즘(dualism)은 1990년대 카오스 현상, 가치경계의 함몰, 뉴스사이어티적 바탕에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서로 다른 모습, 각각으로 인정되었던 모순된 양면성을 하나로 인정한다는 개념으로서 즉, 어떤 한 부분도 부정될 수 없는 하나의 개체, 혹은 하나의 본질로 이해된다.<sup>21)</sup>

상호텍스트의 궁극적 의미는 위의 듀얼리즘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고정관념이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기능을 함유하여 텍스트의 이분법적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것이다.

헤어스타일 텍스트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의 특징은 성, 장식의 아이템, 지위, 나이, T.P.O, 등의 모든 헤어스타일 패션의 경계선을 허물어 다 해석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존사회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면서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열린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Vidal Sasson은 1960년대 '뽀스타일'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의 머리로부터 자유로움을 주기 시작했다. 샤넬이 꼭 조이는 코르셋에서 여성을 해방시켰듯이 천편일률적인 헤어스타일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얼굴윤곽을 고려하여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미지를 주면서도 심플하고 섬세한 점이 특징인 '뽀스타일'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수용되어 왔으며 남, 여성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현상 중 최근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여성다운 아름다움의 헤어스타일이라고

19)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이론, 민음사, p.204.

20) 이광래, p.125.

21) 경한주, 1995, p.21.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성적인 커트라인을 이용한 여성들은 컬러의 악센트를 이용해 남성적이고 동시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미시켜 성관념의 헤어스타일을 해체한다. 또한 남성들도 여성적 커트라인과 동시에 남성적 새털효과를 통해 성의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즉 여성, 남성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다른 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헤어스타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Llongueras는 남성적인 아주 짧은 커트를 밤색 컬러와 밝은 구리빛 컬러의 이중 색조를 이용하여 여성스러움을 조합시켜 성의 이분법적 형이상학을 해체시킨다. 또한 상호텍스트적인 헤어스타일은 성은 물론 시간, 목적,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것으로 상대 텍스트성을 인용한 믹싱모드(Mixing Mode)라 할 수 있다. 믹싱모드는 어질성, 부적합성, 이의성을 추구하여 이분법적인 조화, 상식, 룰 등을 붕괴, 해체시킨다.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여러 아이템이나 조형방법의 아이디어를 인종, 문화,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수용하여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표현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하고 확장된 표현세계를 제시한다.

Jason and India Miller는 가르마를 중심으로 다른 색의 헤어피스를 이용하여 스프링같은 효과를 내어 노트 같은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다.

비달사순은 줄리엔 맥도널드 컬렉션에서 헤어의 포니테일의 뼈죽뼈죽한 부분을 어항안에 담아 부채처럼 펼쳐놓는 이색적인 디자인을 통해 헤어



<그림 2> 미용회보, 1999년 1월 (Vidal Sasson작품)



<그림 3> Hair Flair, 1997년 6월호 (Jason and India Miller)



<그림 1> 누벨에스테틱, 1997년 6월 (Llongueras의 작품)

스타일의 표현세계의 무한함을 과시하였다.

## 2. 탈중심

무가치, 소외되었던 제 3세계, 여성, 소수민족, 하위문화와 같은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으로 원래의 의미에서 탈피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서구 중심적인 획일적 미의식을 해체함으로써 로고스중심주의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탈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탈중심적 해체주의의 헤어스타일은 기본적 형태에서 벗어난 비대칭적 구조나 파괴적, 일정한 방향성을 무시한 헤어스타일의 디자

인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여 의식보다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여 '소의'를 미적으로 극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기존 가치와 양식을 붕괴 해체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함으로써 탈중심화된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

세랄은 헤어스타일의 전통적 프론트헤어의 표현을 전위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긴 두발을 이용하여 앞머리와 같이 밴드를 만들어 이마를 가림으로써 전통적 표현을 해체하였다.

Paterson은 두 개의 머리묶음을 비대칭적으로 처리하고 하늘로 향하게 디자인하여 전통적인 헤어의 방향을 해체한 디자인을 통해 기하학적인 스타일을 묘사하였다.

코리아나 슈마츠코프는 전체를 하이라이팅 한 후 거칠게 표현하여 파괴적이고 터프한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제시하여 자유롭고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비슷한 이미지로 헤어의 끝부분을 묶거나 스틱을 이용하여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디자인하였고 질풍의 헤어스타일링을 이용하여 강하고 터프한 느낌의 헤어를 디자인하였다.

Sergio Bossi는 일반적인 커트에서 헤어라인만을 제외한 커트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스타일을 거부한다.

웬라는 1999년 컬러트렌드에서 제시한 헤어스타일에서 일정한 방향을 무시한 채 식품의 가지냉물이 얼굴을 감싸안은 듯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였으며 비탈사순 뉴욕 컬렉션에서 전통적 헤어라인과 미를 초월한 등글게 커트하고 중앙을 뾰족하게 표현한 디자인과 뒷머리를 위로 향하게 고정시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색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 3. 의미의 불확정성

대리다는 전통적인 철학세계를 비판하면서 체계의 불확정성을 제시하였다. 불확정적 의미의 헤어스타일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치 않으면서 무한히 개방된 공간구성에 의한 우연성을 제시<sup>22)</sup>한다. 즉 정확한 조형이 배려되지 않은 채 완성된 잠재적 형태를 말한다. 인체의 운동으로



<그림 4> 미용희보, 1999년 6월  
(세랄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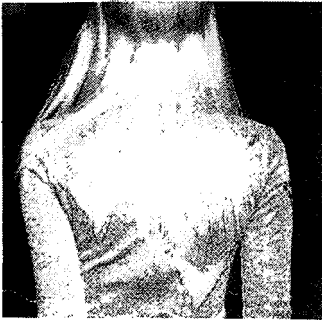
<그림 5> Hair and Beauty, no. 10  
(Paterson의 작품)



<그림 6> Hair and Beauty, no. 10

인해 달라지는 불확정적 우연의 미와 비구조적 형태의 미로써 미완성 미학의 자유로운 정신을

22) 경한주, p. 37



<그림 7> Hair and Beauty, no. 8  
(Sergio Bossi)



<그림 10> Beauty fashion, 1999년 6월  
(장 마크 마니아티스 작품)



<그림 8> 미용회보, 1994년 4월  
(엘라의 쿨러트랜드 발표작품)



<그림 11> 화장품신문, 1999년 6월 21일  
(코리아나 슈바츠코프의 작품)



<그림 9> 미용회보, 1999년 6월  
(Vidal Sasson)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자유스러움과 가벼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형성되어 끝이 가늘고 그라데이션되어 약세사리적인 헤어컬러로 강조한다.

장 마크 마니아티스는 끝을 뾰족하게 한 모발에 끝부분만 불규칙적으로 잡아 탈색한 후 내추럴 베이지 색상을 입혀 모발의 불규칙한 움직임 을 더욱 강조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라닌카레는 전체적으로 짧은 커트에 앞머리를 길게 내려두어 얼굴선을 가려주면서 동시에 머리



<그림 12> 미용회보, 1999년 4월  
(Keith Harris의 작품)

를 올린듯한 착시 현상까지도 보여준다.

코리어나 슈비츠코프는 전혀 정돈되지 않는 스타일, 윤곽선을 아무렇게나 흐뜨려 놓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터프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제시한다.

웰라와 Keith Harris는 일정한 형태나 방향을 무시하였으나 결코 무질서하지 않는 부정확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였다.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의 특징

해체철학이론	헤어스타일의 표현양식의 특징	확장된 미의 개념
상호텍스트성	제 3성의 출현 이질성 부적합성 의외성	부조화적 미를 부각
탈중심	비대칭성 파괴성 무질서성	소외된 미를 부각
불확정성	부정확성 무결정성 비구조성	우연적인 미를 부각

이와 같이 해체주의적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표현세계를 통해 부조화적 미, 소외된 미, 우연적인 미 등 확장된 미의 사고를 열어주었다.

#### IV. 결 론

오늘날 헤어스타일은 객관적 원리나 미적 평가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다양화되고 개성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닫힌 세계를 거부하고 열린사고를 추구하는 테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의 표현양식에 대한 조형적 시각을 재조명하고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헤어스타일을 테리다의 해체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텍스트성으로 인하여 이분법적 형이상학을 해체하였다.

남성적 커트라인에 여성적 염색기법을 이용한 다거나 여성적 커트라인에 남성적 셋팅효과를 이용하여 이분법적 성의 개념에서 초월한 제 3성을 출현시켰고 헤어장식과는 거리가 먼 아이템 즉, 어항이나 물고기 등을 이용한 장식 등의 다양한 아이템과 노트와 같은 가르마 장식을 통한 다양한 조형방식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방법으로 제 3성의 출현, 이질성, 부적합성, 의외성 등을 통한 새로운 미인 부조화적 미를 추구하였다.

둘째, 탈중심성으로 인하여 로고스중심주의적 형이상학을 해체한다.

비대칭적 또는 전위적 헤어스타일의 표현 등은 고정관념적인 미적 관념의 비율, 형태, 구조 등을 해체하여 기존 미의 비대칭성, 파괴성, 무질서와 같은 소외된 미 즉, 추를 부각시켰다.

셋째,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현전의 형이상학을 해체한다.

고정적 스타일이 아닌 우연적 상황에서의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로움 또는 가벼움이 표현된 커트라인, 무방향성의 셋팅효과 등을 통해 무질서하지 않은 부정확한 헤어스타일을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완성태가 아닌 미완성태에서 미를 보여주었다. 즉, 부정확성, 무결정성, 비구조성

등 그 대상자의 움직임이나 연출에 의해 우연적 미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헤어스타일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미의 개념을 해체시켜 미적으로 소외된 모든 표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확장된 미의 열린 헤어스타일을 지향함으로써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열린사고, 열린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경한주,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
- 김만자, 2차 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 2, 69-80. 1987.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6.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이론, 민음사.
- 김주영,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현상 (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21 (8) pp. 1261-1274. 1997.
- 김주영,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 (제 2보) 한국의류학회지 22 (1) pp. 3-17. 1998.
- 누벨에스테틱, 1997년 1월~1999년 6월.
-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미용회보, 1997년 1월~1999년 6월.
- 양세은,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 이현아, 해체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1997.
- 임헌규,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1.
- 장경숙, Jacques Derrida의 해체이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5.
- 함성우, 해체주의적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및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화장품신문 1997년 1월~1999년 6월.
- Beauty fashion, 1997년 1월~1999년 6월.
- Hair Flair 1997. 1~1999. 6.
- Hair and Beauty no. 6-no. 12.
- MODAIN No. 106-111.
- Richard Martin & Harold Koda (1993), *Infra Apparel*, N. 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